

# '건축문화, 감성과 미래를 담다'

도민과 함께 여는 전북건축문화제, 6일간 대장정 돌입  
백일장·어린이 집 그리기·건축올림피아드 등 다채

전북도도와 전북도 건축문화진흥연합회는 지난 25일 전북도청 기획전시실과 1층 로비에서 '제20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를 열고, 6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전북도 건축문화제는 2000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20회를 맞이했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 축제로서 전라북도 건축발전과 건축인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제20주년을 맞이하여 '건축문화, 감성과 미래를 담다'라는 주제로 건축문화상 수상작 36점과 어린이 집 그리기, 백일장 대회 등 도민참여 행사 수상작 25점을 비롯해 한·중·일 국제건축작품전, 역대

건축문화제 재조명, 도시랜드마크, 과학과 디자인을 엮은 DDP 건축과정 전시, 한옥건축 모형 전시와 건축관련 학술대회, 명사초청 강연 등 다채로운 건축문화 행사가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날 개막식에는 300여명의 건축 관계자 및 초·중·고·대학생들의 수상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건축문화상과 어린이 집 그리기, 건축 올림피아드 등 도민참여 행사 시상식과 같이 열렸다. 건축문화상 수상자로는 사용승인 공공부분에 (주)김중환건축사사무소이엔지 이길환 건축사가 설계한 '장수군청사 건립사업', 사용승

인 일반부분은 (주)건축사사무소 핸드 박영일 건축사가 설계한 '파머스빌리지-농부들의 숙소', 학생부 전체대상 부문은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연기영의 작품인 'Deck Dock Dwelling'가 차지하여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어린이 집 그리기 전체대상에는 전주효림초등학교 2학년 백지은 학생이, 백일장 대회 대상에는 전주교대 전주부설초등학교 5학년 손하람 학생이, 건축 올림피아드 대상에는 이리고등학교 2학년 김민서 학생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용민 도 건설교통국장은 "건축은 문화예술의 결과물이고 도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건축물은 의미가 없다"며, "계속해서 건축 관련 종사자들과 도민들이 소통해 우리 도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알아가고 발전시키도록 건축문화제 행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남원 관한루원에서 남원시관광협회의 주관으로 우리고유의 예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통혼례 체험을 상설 운영하고 있다.

## 남원시, 관한루원 무료 전통혼례 참여자 신청 받아

남원시에서는 춘향과 이도령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가 있는 남원 관한루원에서 남원시관광협회의 주관으로 우리고유의 예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통혼례 체험을 상설 운영하고 있다. 남원시의 전통혼례체험은 지난 200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잊혀져 가는 우리의 문화를 보존하고 관광객들에게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전통문화의 도시 남원을 널리 알리는데

힘써 왔다. 혼례식은 매년 4월~5월, 9월~10월까지 매주 토요일(11시~12시) 관한루원 월매집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관한루원 정문에서 풍물단의 터울림을 시작으로 신랑신부 신행 길놀이, 대례의식, 축하마당, 닭날리기, 포도존 순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전국에서 212쌍이 참가해 실제 결혼한 혼례식 및 이벤트 체험 등 내국인은 물론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필리핀 등 외국인들도 남원에서 아름다운 부부의 인연을 맺었으며, 혼례를 못 올린 부부나, 다문화가정, 예비부부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매년 3월 사전 선착순 공개모집(063-633-5353)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참가비는 무료이다. 한편 남원시와 남원시관광협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체험관광상품의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전개하는 등으로 사랑의 남원 이미지 강화는 물론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 국내 최대 도자행사로 각광

남원국제도예캠프 성료... 세계 10개국 116명 작가 참여

남원시 여천동 사랑의 광장에서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10개국 116명의 국내외 각국의 저명한 도자예술가가 참여한 제8회 남원국제도예 캠프가 개최됐다.

도예캠프조직위원회(위원장 김광길)에 따르면 이번 캠프는 '조선 도공, 남원 르네상스를 꿈꾸다'란 주제로 개최됐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터키, 태국, 라트비아 등 세계 10개국 116명 작가가 참여, 지역에서 개최되는 도자행사로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전통 도자기 실기 시연 및 국제적인 도자예술의 트렌드와 현대적 기교와 표현기법을 소개하는 초청작가의 워크숍을 비롯해 특강이 5개국 6인 강사에 의해 펼쳐졌고, 또 물레경진대회, 전국대학생 도자 아트 페어 등 예술성 넘치는 다채로운 행사가 곳곳에서 운영됐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남원국제도예캠프는 세계 최고수준의 '사쓰마 도자기'를 만들어온 남원도공의 역사적 우수성을 재조명하고 국제작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남원도자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개최되었다.

특히, 올해는 국제작가와 시민과의 교류를 위해 사랑의 광장으로 자리를 옮겨 개최된 까닭에 시민과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축제를 즐김과 동시에 물레경진대회, 전국대학생 도자 아트 페어 등 일반인과 젊은 층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확대, 진행되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물레경진대회에서는 일반인과 대학생 외에 고등학생까지 참여하고,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의 도예인들이 다채롭게 접수하는 등 국제적 도예행사로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았다.

김광길 조직위원장은 "도예캠프가 앞으로 많은 시민과 작가들의 교류와 소통, 예술 발전의 장으로써 자리매김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고창 무장현 관아·읍성 출토 비격진천뢰 특별전 개막

12월까지 고인돌박물관 기획전시실서

고창군(군수 유기상)과 국립진주박물관(관장 최영창)이 25일 오후 지역 문화재 관계자와 군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고인돌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2019년 조선무기 특별전-비격진천뢰' 개막식을 열었다.

특별전은 오는 12월 22일까지 진행되며, 11월 15일에는 비격진천뢰 보존과 활용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특별전시회는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사적 제346호) 출토 비격진천뢰와 발사체인 완구, 그리고 비격진천뢰 관련 교문서 및 무장읍성 발굴조사 출토유물 등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했다.

기존 알려진 비격진천뢰는 보통 제860호 서울 창경궁 발견품 등 전국적으로 5점만이 전해졌으나, 지난해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 군기고(추정) 일원 발굴조사에서 비격진천뢰 11점이 무더기로 출토돼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에 지난 1월3일 국립진주박물관(임진왜란 전문박물관)과 (재)호남문화재연구원(은암무

형정을 맺고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 출토 비격진천뢰에 대한 보존처리와 과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특별전시회에서는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 출토 비격진천뢰의 과학조사 결과와 기존 분석 결과를 종합했고, 새로이 밝혀낸 비격진천뢰의 제작과 조립 과정을 3D프린트 복원품으로 상세히 소개하며 비격진천뢰를 쉽게 이해하도록 몰입형 대형영상도 마련했다.

여기에 새롭게 확인된 비격진천뢰 뚜껑(개철, 蓋鐵)의 형태와 잠금방식, 비격진천뢰 기벽(껍질) 두께에 숨겨진 폭발의 비밀, 3D스캔 실측 데이터와 문헌 속 정보의 비교 분석하여 관람객의 이해를 돕고 흥미를 높여주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비격진천뢰를 비롯한 다양한 조선무기에 대한 선조들의 지혜와 최첨단 기술을 재조명하고, 오직 나라를 위한 마음을 배우고 과학기술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고창에서 열리는 비격진천뢰 특별전에 많은 관심과 관람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안내

축! 전주매일 창간

### 농지매매 및 임대차

연령, 농지 경영규모, 영농 경력에 따른 농지 매매 및 임대차 지원으로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의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 지원

#### 농지매매사업

- 지원대상자
  - 전업농육성대상자(청년창업농, 2030세대, 후계농, 귀농인, 만64세 이하 일반농업인)
  - 전업농, 농업법인, 영농복귀자
- 지원대상농지
  - 농업진흥지역 또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
- 지원조건
  - 연리 1%, 연령별 상환기간 차등 적용(최장 30년)
  - \* 생애 첫 농지지원의 경우 : 논3.3㎡당 45,000원 지원
  - 2년간 벼 이외의 타 작물 재배 후 벼농사로 전환 가능(타 작물 재배기간 동안 이자 감면 혜택)

#### 농지임대차사업

- 지원 대상자 : 농지매매사업과 동일
- 지원대상농지 :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 우선 임대(경영이양직불 대상자 우선 지원)
- 임대차 기간 : 5년 ~ 10년
- 농지 임대료 :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농지시장 안정화 및 농지 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이농, 전업, 고령,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

#### 농지 매입

- 매입대상자
  - 이농, 전업, 고령, 질병 등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
- 매입대상농지
  - 농업진흥지역 안의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1필지의 면적이 1,983㎡ 이상인 농지)
- 매입가격 : 감정평가액

#### 매입농지 임대

- 임대대상자
  - 신규임대 : 전업농육성대상자
  - 재 임대 : 기존 임차인 희망시 계속해서 재임대 가능
- 임대 기간 : 5년(5년 단위로 재임대 가능)
- 임대 가격 : 공사에서 정한 임대차료 상한 범위 내 협의가격
- 임대 조건 : 5년간 벼 이외의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
  - 타작물 재배시 임대료의 80% 감면 혜택
  - 휴경시 임대료 100% 감면 혜택